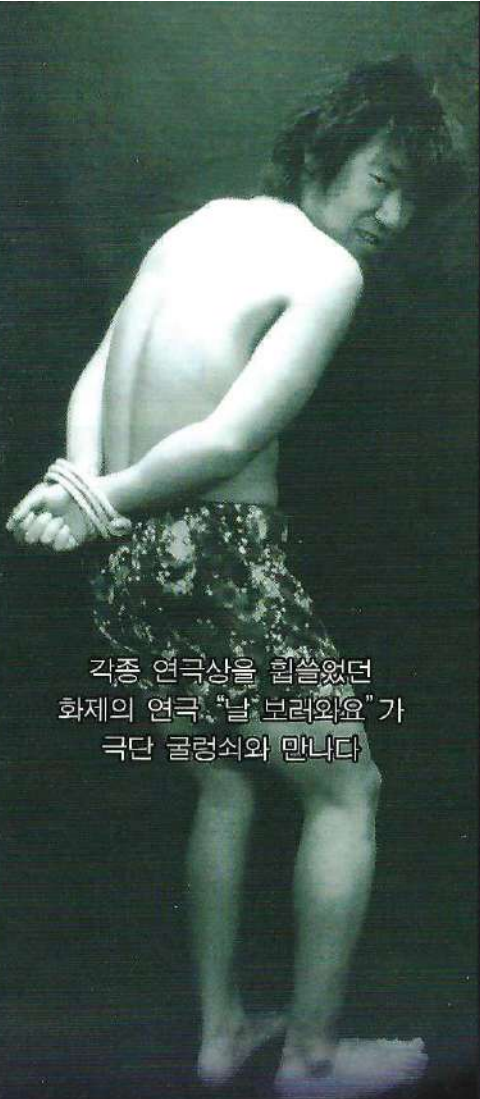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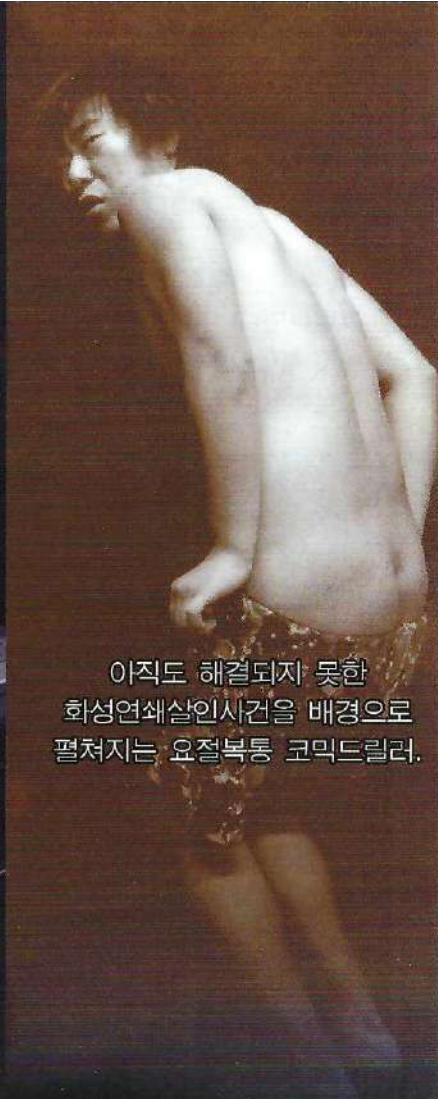




각종 연극상을 휩쓸었던  
화제의 연극, "날 보러와요"가  
극단 굴렁쇠와 만나다



숨막히는 사건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요절복통 코믹드릴러.

2003년 무대공연 제작지원 작품 /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극단 「굴렁쇠」 송년공연

# 날 보러와요

영화 "살인의 추억" 원작

김광림 · 작 / 김귀선 · 연출

2003년 12월 20일(토) ~ 21일(일) 저녁 7시 / 속초문화회관

주최 : 문화관광부 · 속초시 / 주관 :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극단 「굴렁쇠」 / 후원 : 강원문화재단

공연문의 631-8070 / 017-371-8070

“96년 초연되어 당시 각종 연극상을 휩쓸었던 화제의 연극  
“날 보러와요”가 극단「굴렁쇠」의 2003 무대공연지원사업 연극  
작품으로 선정되어 올 연말에 속초에서 다시 무대에 오른다.”

**혹시 ...**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셨나요?

그렇다면 그 영화가 연극「날 보러와요」를 모태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 또한 아십니까?

온갖 첨단장비, 첨단기술로도 이 지능적인 범인 하나를 못잡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실이란 그렇게도 체포하기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에 극단 굴렁쇠가 자신했게 선보이는 「날 보러와요」는  
**재미있는 연극입니다.**

**재미 뒤에는 웃음이 있는 연극입니다.**

**재미와 웃음 뒤에는 눈물이 있는 연극입니다.**

**재미와 웃음과 눈물 뒤에는 분노가 있는 연극입니다.**

**재미와 웃음과 눈물과 분노 뒤에는 진정한 슬픔이 배어 있는 연극입니다.**

## 줄거리

무대는 태안지서 형사계 사무실 서울에서 자원한 김반장, 시인 지망생의 김형사, 이 지역 토박이인 박형사 그리고 무술 9단의 조형사, 이렇게 4명이 한 팀이 되어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과 공조 관계에 있는 경기일보의 박기자 역시 범인 추적 뿐 아니라 수사 과정을 취재하고 있다. 먼저 조형사가 용의자 이영철을 잡아와 범인이라고 단정하고 심문하지만 지백 외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처음부터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김형사는 라디오에서 모짜르트 음악이 나오는 날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음악에 주의를 기울인다.

한편 쑥디방의 미스 김은 김형사의 그런 모습과 그가 쓴 시에 반하게 되고 김형사 또한 미스 김의 순수한 마음에 끌리게 된다.

그러던 중 새로운 살인 사건이 터지고 새로운 용의자 남현태를 잡아 취조하지만 수사는 잘 진척되지 않는다. 언론의 추측 보도, 상관의 추궁 등에 수사팀은 기진맥진해진다. 또 이영철의 자살과 그 이유가 경찰의 고문때문이라는 신문 보도로 더욱 허탈감에 빠진 김반장은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다. 화성 사건 보도로

중앙지에 스카우트된 박기자의 도움 때문에 김반장의 사표는 반려되고, 수사팀은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데, 드디어 그동안 라디오에서 귀를 떼지 않던 김형사가 그날 라디오에 모짜르트 음악이 신청된 사실을 알아내고 살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감, 그 지역에 비상을 걸지만 14세의 여자가이가 참혹하게 살해된다. 방송국에 모짜르트를 신청한 정인규가 체포되고, 용의자의 혈액형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모근의 혈액이 같다는 사실이 판명되어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

그러나 마지막 DNA검사결과, 그 모근이 범인의 것과 다르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 충격으로 김반장은 쓰러진다. 또 박형사는 형사생활을 그만두고, 범인을 집요하게 추적하던 김형사는 ‘범인은 없다’고 울부짖으며 실성하게 된다.

결국 모두 사건에서 떠나게 되고 세월은 흘러가나 범인은 잡히지 않는다.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김반장을 찾아온 박 기자. 빨리 나서서 범인을 잡으라고 김반장을 격려한다. ‘전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쓸 거예요. 하지도 빠짐없이 전부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셔서 범인을 잡으셔야 되요...!

**공연일시 : 2003년 12월 20일(토)~21(일) 오후 7시 / 공연장소 : 속초시 문화회관 대강당**

**김광림 작 / 김귀선 연출**

**출연 : 김태영, 석경환, 황현중, 김설희, 김승현, 윤영은, 남호섭, 윤국원, 문선정, 최금영**

지난 6월 제21회 전국연극제에서 금상(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강원도 연극의 대표 자존심 - 극단 굴렁쇠!!!!

섬세한 연출의 김귀선!!!

배우들의 밀도있는 탄탄한 연기!!!

영화 「살인의 추억」의 강렬한 자극을 이번엔 연극「날 보러 와요」로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중학생 이상만 입장 가능합니다.

※공연 30분전에 입장하세요.

공연문의 : 631-8070 / 017-371-8070



연출·김귀선



김반장·김태영



박형사·석경환



조형사·황현중



김형사·김승현



박기자·김설희



남씨·최금영



미수길·남씨부인  
문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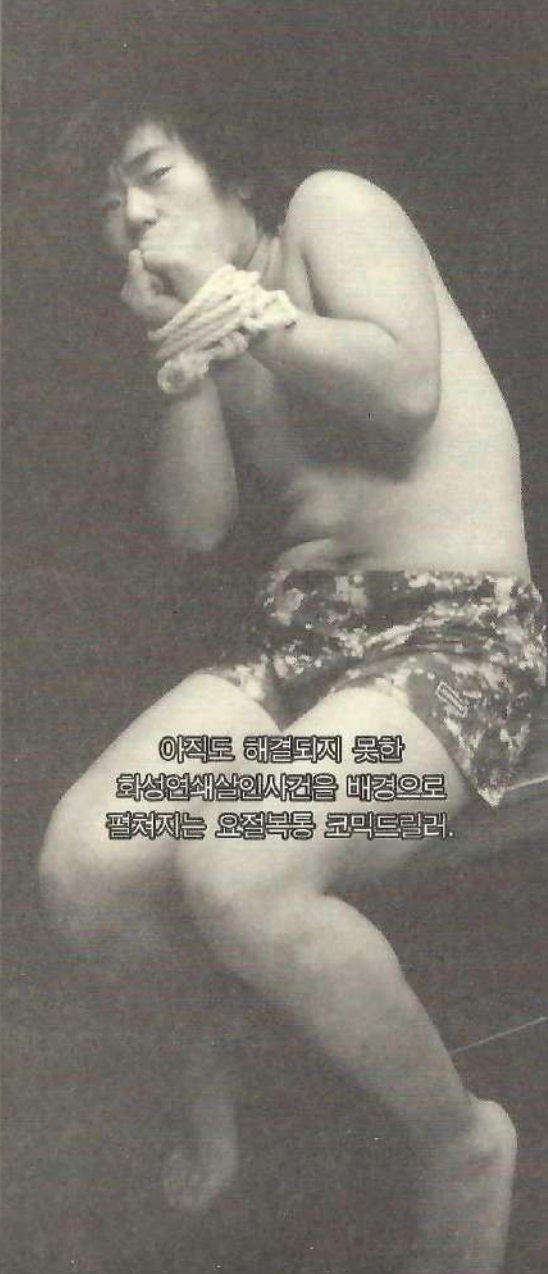
용의자·남호섭



용의자친구·윤국원



각종 연극상을 휩쓸었던  
화제의 연극 "날 보러와요"가  
극단 굴렁쇠와 만나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요절복통 코믹트릴러.

2003년 무대공연 제작지원 작품 /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극단 「굴렁쇠」 총연공연

# 날 보러와요

영화 "살인의 추억" 원작  
김광림 · 작 / 김귀선 · 연출

2003년 12월 20일(토) ~ 21일(일) 저녁 7시 / 속초문화회관

주최 : 문화관광부 · 속초시 / 주관 :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극단 「굴렁쇠」 / 후원 : 강원문화재단

어느덧 2003년 개미(癸未)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때 서로에게 허물진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화해와 용서로서 상생(相生)으로 마무리 해야 할 시기인것 같습니다.



을 초 속초예술회장에 당선되면서 약속드린 <문화예술 관광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리워 지는 아름다운 속초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것처럼 공연, 전시, 축제 등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생명력을 전달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국제 문화예술교류를 통해 속초시를 알리고 지역민에게 새로운 문화예술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자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거의 매일 봅니다. 우리나라 성인중 5명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 밖에 없게 하고 왜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만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술이란 이런 삭막한 세상일수록 절실하게 필요한 삶의 배양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기 때문에 '매일 죽어서 다시 살아나' 일회성(一回性)을 지니며, 연극은 매 공연마다 새로운 생명을 느끼는 예술입니다.

삶에 지쳐있을때 한번쯤 극장을 찾을 수 있는 여유로움을 찾아보십시오.

극단 「굴렁쇠」는 지난 6월 전국연극제 금상을 비롯하여 15여년의 활발한 공연활동으로 강원도 대표극단으로 자리 매김하였으며 속초시 위상을 높이는데도 일조를 한 공연예술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늘 재정적인 어려움과 전문예술단체로의 도약에 필요한 모든 여건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신 속초연극협회 지부장 김민환님, 대표이자 연출 맡으신 김귀선님 이하 작품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포함합니다.

남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결실 맺으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 12 속초예술회장 한 기 학

## 인사말 · 연출의 글

또 하나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작년에 화성연쇄살인사건에 흥미를 가져서 이 대본을 신청하였고 그 느낌에 어긋나지 않게 연극도 대박, 영화 '살인의 추억'도 대박 터졌다.

항상 가슴이 뜨거운 속초 배우들이 다 모였다. 그리고 그토록 지겨운 작업에 또 불을 담겼다. 말이 나와서 얘기지 정말 올 한해를 지겨울 정도로 연극을 했다.

남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그저 시간만 되면 작업장으로 배우들은 모였고 땀흘리며 마신술만 아마 주류회사 하나는 차릴 것이다. 집에 아내나 애들 얼굴보는 시간 보다도 우리는 지겨울 정도로 서로를 매일 확인했고 예민하게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그 집안의 상태가 어떠한지 극동지들의 바이올리들이 어떠한지가 자동으로 체크되었다.

두달간의 저녁7시부터 11시, 12시까지의 연습, 그래도 그나마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일요일은 쉼겨왔다. 바라는 것은 없다. 그저 불꽃튀기는 한순간을 맛보려고 그렇게들 성직자 같은 마음으로 만들고 또 만들었다.

워낙 알려진 연극이라 대본에 충실했고 매 장면 신명나는 배우들의 호흡으로 관객과의 승부를 가름하려고 한다.

축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속초 현장예술의 수준을 확인하고 속초 연극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작업에 참여한 배우 여러분 항상 도움을 주시는 전 스태프 여러분들께 가슴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특히 기성극단에 처음 발을 내딛는 연극영화과 제자들에게도 좋은 첫출발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속초무대예술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속초시와 예총에도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자 극동지들이여 힘을내라, 호흡을 모으고 소리를 내면서 그들의 눈과 마음을 송두리째 내 손끝에 담아두자 그리고 서서히 열리는 우리만의 공간으로 뚫겨 보자꾸나!



“96년 초연되어 당시 각종 연극상을 휩쓸었던 화제의 연극  
“날 보러와요”가 극단「굴렁쇠」의 2003 무대공연지원사업 연극  
작품으로 선정되어 올 연말에 속초에서 다시 무대에 오른다.”

**혹시...** 영화「살인의 추억」을 보셨나요?

그렇다면 그 영화가 연극「날 보러와요」를 모태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 또한 아십니까?

온갖 첨단장비, 첨단기술로도 이 지능적인 범인 하나를 못잡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실이란 그렇게도 체포하기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줄거리

무대는 태안지서 형사계 사무실 서울에서 자원한 김반장, 시인 지망생의 김형사, 이 지역 도박이인 박형사 그리고 무술 9단의 조형사, 이렇게 4명이 한 팀이 되어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과 공조 관계에 있는 경기일보의 박기자 역시 범인 추적 뿐 아니라 수사 과정을 취재하고 있다. 먼저 조형사가 용의자 이영철을 잡아와 범인이라고 단정하고 심문하지만 자백 외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처음부터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김형사는 라디오에서 모짜르트 음악이 나오는 날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음악에 주의를 기울인다.

한편 쑥다방의 미스 김은 김형사의 그런 모습과 그가 쓴 시에 반하게 되고 김형사 또한 미스 김의 순수한 마음에 끌리게 된다.

그러던 중 새로운 살인 사건이 터지고 새로운 용의자 남현래를 잡아 취조하지만 수사는 잘 진척되지 않는다. 언론의 추측 보도, 상관의 추궁 등에 수사팀은 기진맥진해진다. 또 이영철의 자살과 그 이유가 경찰의 고문때문이라는 신문 보도로 더욱 허탈감에 빠진 김반장은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다. 화성 사건 보도로 중앙지에 스카우트된 박기자의 도움 때문에 김반장의 사표는 반려되고, 수사팀은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데, 드디어 그동안 라디오에서 귀를 떼지 않던 김형사가 그날 라디오에 모짜르트 음악이 신청된 사실을 알아내고 살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감, 그 지역에 비상을 걸지만 14세의 여자아이가 참혹하게 살해된다. 방송국에 모짜르트를 신청한 정인규가 체포되고, 용의자의 혈액형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모근의 혈액이 같다는 사실이 판명되어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

그러나 마지막 DNA검사결과, 그 모근이 범인의 것과 다르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 충격으로 김반장은 쓰러진다. 또 박형사는 형사생활을 그만두고, 범인을 집요하게 추적하던 김형사는 '범인은 없다'고 울부짖으며 실성하게 된다.

결국 모두 사건에서 떠나게 되고 세월은 흘러가나 범인은 잡히지 않는다. 외줄종으로 반신불수가 된 김반장을 찾아온 박 기자. 빨리 나서서 범인을 잡으라고 김반장을 격려한다. '전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쓸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셔서 범인을 잡으셔야 되요....'

올 연말에 극단 굴렁쇠가 자신있게 선보이는 **날 보러와요**는 재미있는 연극입니다.

재미 뒤에는 **웃음**이 있는 연극입니다.

재미와 웃음 뒤에는 **눈물**이 있는 연극입니다.

재미와 웃음과 눈물 뒤에는 **분노**가 있는 연극입니다.

재미와 웃음과 눈물과 분노 뒤에는 **진한 슬픔**이 배어 있는 연극입니다.

지난 6월 제21회 전국연극제에서 금상(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강원도 연극의 자존심 - 극단「굴렁쇠」!!!!

## 단원분들을 모집합니다

학력제한 없고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나...

문의전화 017-371-8070

# C · A · S · T



김반장 · 김태영



박형사 · 석경환



조형사 · 황헌중



김형사 · 김승현



박기자 · 김설희



사내 · 최금영



미스김 · 문선정



이영철, 남현태 · 남호섭



김우철, 정인규 · 윤국원

# S · T · A · F · F

■ 무대 · 김일태 / 이용운

■ 기 획 · 유택민

■ 조명 · 윤종국 / 김성준

■ 음악 · 남상진

■ 조연출 · 박지연

■ 진행 · 심재훈

1990. 7 꼭두극단으로 창단  
 1990. ~91.6 햇님달님 외 6편 공연(아동극)  
 1992. 11 성인극단으로 전환  
 하나님 비상이예요 박재서 작 / 김귀선 연출  
 1993. 5 새장과 화장실 최재도 작 / 김귀선 연출  
 1993. 9 위기의 여자 보바르 작 / 김귀선 연출  
 1994. 12 악장사 오테석 작 / 장규호 연출  
 1995. 4 돼지와 오토바이 이만희 작 / 김인환 연출  
 1995. 10 극단 굴렁쇠 제1기 work shop 실시  
 1996. 4 그대여 또다시 바다로 가거든  
 <제14회 전국연극제 금상 수상>  
 최재도 작 / 장규호 연출  
 1996. 10 서툰사람들 장 진 작 / 장규호 연출  
 1996. 12 허방 장 진 작 / 장규호 연출  
 1997. 5 불좀 꺼주세요 이만희 작 / 장규호 연출  
 1997. 11 피고지고 피고지고 이만희 작 / 장규호 연출  
 1998. 11 효적등본 이만희 작 / 장규호 연출  
 1998. 12 극단 굴렁쇠 제2기 work shop 실시

1999. 4 작은 할머니 엄인희 작 / 김귀선 연출  
 1999. 12 도덕적 도둑 다라오 포 작 / 박영미 연출  
 2000. 2 극단 굴렁쇠 제3기 work shop 실시  
 2000. 4 돼지배계  
 <제18회 전국연극제 최우수연기상 수상>  
 오테석 작 / 김귀선 연출  
 2000. 11 용띠개띠 이만희 작 / 김귀선 연출  
 2001. 4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이만희 작 / 김귀선 연출  
 2001. 12 극단 굴렁쇠 제4기 work shop 실시  
 2002. 4 아카시아 흰꽃은 바람에 날리고  
 <제20회 전국연극제 동상, 연기상 수상>  
 이근삼 작 / 장규호 연출  
 2002. 12 극단 굴렁쇠 제5기 work shop 실시  
 2003. 6 택시드림  
 <제21회 전국연극제 금상, 최우수연기상 수상>  
 장 진 작 / 김태영 연출